INSIDE
YTN
2017. vol.126
더 나은 내일을 전합니다

2017 YTN 어젠다 _ 상식 · 정의 · 원칙, 바로 서는 대한민국

CONTENTS

1 Jan - 2 Feb 2017/vol.126

IN

In Newsquare

2017년 YTN 신년사 04

2017 YTN 어젠다 선정기 – 언행일치 | **정치윤** 08

때론 광고주 편에 서는 사람들 | **이성근** 10

Exclusive Now

11월 특종기 _ 국민안전처 내정자 굿판 참석 | **조성호** 12

YTN 라이프 채널 론칭

YTN 라이프와 늘 푸른 인생을! | **조승희** 14

신년특별기고

시청자위원장에게 듣는다 | **반장식** 17

이 방송 궁금하다

김형준의 대선 빅데이터 | **김형준** 18

제34회 관훈언론상 수상기

모바일 혁신의 선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 | **강성웅** 20

2016 YTN 연말 대상 수상기

사건팀이 돌아본 2016년 | **최기성** 22

2016 YTN Award

11, 12월 자랑스러운 YTN인 상 24

2016년 YTN 대상 25

SIDE

홍경한의 아트스퀘어 _ 사석원 작가

26 **홍경한** | 그림으로 쓴 우리네 역사와 삶의 기행기

앵커의 변신 _ 장민정 앵커

28 **김여진** | 상암동에 뜬 경성 모던걸, 방송원 장민정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_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30 **유석현** | 위안과 안식을 주는 음악

Number & Talk _ 대장 엄홍길

32 **김여진** | 대장 엄홍길

영화평론가 최광희의 〈영화가 그린 세상〉 _ 로베르토의 특별한 일주일

36 **최광희** | 여전히 사람이 희망이다

38 **YTN 이모저모**

표지 사석원 作 | 왕이 된 수탉 72.5 X 60.5 cm Oil on Canvas 2005

작가 사석원의 작품은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정겹다. 이질감 없는 포근함, 삶의 서사가 배어 있는 해학과 은유는 자연스러운 미소로 화답하도록 한다. 화려하지만 거부감 없는 색, 기운에 찬 붓질, 사랑스러운 형상이 겹치고 덧대어진 결과다. 또한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무게 있는 스토리. 그러면서도 우리 역사의 장면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거둬들여 꼼꼼하게 해석하는 그의 그림엔 우리네 정서가 배어 있고 진중한 역사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희로애락, 평등의 가치로 치환된 동물들을 통한 의식과 철학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사석원의 작품에 대해 '격'이 있다고 말한다. 회화라는 전통 장르로 동시대미술의 무경계, 탈경계의 흔적들을 열람케 하는 작가로 평가한다.

발행인 조준희 편집장 최재용 | 커뮤니케이션팀 03926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T 02.398.8000 제보 02.398.8585 디자인·인쇄제작 아이아트플러스 02.2272.9807

2017년 YTN 신년사

사랑하는 YTN 가족 여러분!

2017년, 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도 행복과 정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다지만 지난해는 그야말로 '격랑의 한해' 였습니다. 성난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고 미국에서는 언론의 예상과 예측조사를 무색케 만든 정권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안으로 회사는 언론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3년 연속 적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격변기에 묵묵히 YTN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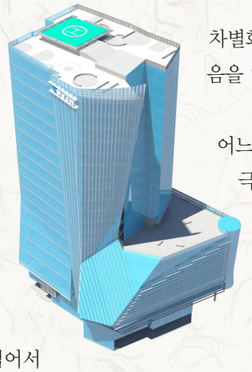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 발 끈 을 조여 매고 불철주야 뛰어주신 덕분에 YTN은 2년간 이어진 적자 고리를 끊고, 3년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매출은 처음으로 1,300억 원을 돌파했고 마케팅국의 광고 · 협찬 매출도 마침내 800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YTN라디오와 DMB, 플러스까지 YTN미디어그룹 전 계열사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을 비롯한 전 계열사가 동시에 영업흑자를 낸다면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갈수록 치열해지는 광고시장의 경쟁 속에서 거둔 결실이기에 더욱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비도 적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상장기업인 YTN은 관리종목지정이라는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갖고 노사협의도 벌였습니다. 협상에만 매달릴 여유가 없어 사장인 저를 비롯한 경영진은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젖 먹은 힘까지 다한다는 각오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강소기업이 힘이다'와 '국민 신문고', '5종 세트' 등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인력이 늘고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에 활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풀무질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원 여러분의 이해와 노력 덕분으로 제작 프로그램들은 사내외에서 각종 상을 수상했고 매출확대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강소기업이 힘이다'는 흑자전환의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세밑, '강소기업이 힘이다' 출연 기업들의 모임인 대강회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라며 보내주신 정성과 격려의 말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와 '원 포인트 생활상식' 등 YTN 5종 세트는 조회 수가 3천7백만 건을 넘어서 'YTN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YTN의 근간은 뉴스이고 간판 상품 역시 뉴스입니다. 우리가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공정성 9년 연속의 기록을 더 이어가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고칠 점은 무엇인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기사 한 줄, 자막 한 글자, 영상 한 컷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인정신을 갖고 차별화된 명품 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YTN 임직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뉴스채널끼리의 경쟁도, 지상파나 종편, 신문과의 경쟁도 아닙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새 소식을 접하는 시청자들은 그 뉴스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새 소식, 차별화된 콘텐츠가 아니면 더 이상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채널을 보나 패널들이 둘러앉아 정파적, 자극적으로 흐르기 쉬운 이른바 '패널 방송'을 하는 게 요즘 뉴스의 일반적 보도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방송사들이 한다고 그냥 따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남을 따라 하지 않고 우리 길을 가는 것이 차별화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지도자와 정책을 원하는지를 빅데이터 심층분석을 통해 전달하는 '김형준의 대선 빅데이터' 같은 경우가 콘텐츠 차별화 시도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외면 받고 있는 아이템을 선별해 집중 보도하는 것도 좋은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변화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해 1등에서 한 순간에 추락한 코닥이나 노키아의 몰락이 꼭 제조업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YTN에 실망하고 쓴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항상 YTN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뉴스가 생기면 언제나 YTN을 찾는, 또 YTN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시청자들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더 나은 방송으로 그 분들의 사랑에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YTN 임직원 여러분!

2017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 등 나라 안팎의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경제도 회복의 조짐이 미약해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2%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광고시장 사정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외부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의 경영목표는 흑자경영의 실현입니다. 제가 취임할 때 했던 '좋은 방송 없이 좋은 경영 없고, 좋은 경영 없이 좋은 방송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YTN은 이제 23살 성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의 매출 규모도 이에 걸맞게 더 키워야 합니다. 이제는 '융·복합 시대'이고, '시스템 경영'의 시대입니다. 단순히 광고 방송을 내보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광고주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YTN웨더&라이프'채널도 새해에는 프리미엄 생활정보 채널인 'YTN 라이프'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부서 사이 벽을 허문 융·복합 전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엮어냅시다.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를 받고 출범한 교육할인스토어와 기업몰은 이제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 거의 다 채우게 된 상암동 사옥과 남산 서울타워 플라자도 올해에는 고객 중심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 수입을 극대화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아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너가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YTN의 경영정상화는 매출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마다 그때그때 광고 매출 실적에 따라 흑자와 적자 사이를 오가는 취약한 경영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를 포함해 덜고 갈 수 있는 짐이 있다면 이제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일터인 YTN을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위에 올려놓을 것인지, 지금 이 순간부터 노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YTN 직장어린이집이 처음 문을 엽니다. 이제 어린 자녀와 함께 출근하는 YTN 사우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YTN은 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의 직장일뿐더러 미래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융화'와 '소통'입니다.

'융화'란 '서로 어울려 사이좋게 화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취임한 이래 YTN의 모든 사원을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670여 명의 면담 대상자 가운데 650명을 면담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봉사원을 포함한 정규직 사원 가운데 외근 등으로 불가피한 20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원을 만난 셈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YTN'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20년을 근무해도 승진의 길이 막혀있던 연봉직 사원들에게도 이제 차장, 부장이 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프리랜서 앵커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면 정규직 앵커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YTN이 아무리 어려워도 연봉직 사원들의 임금만큼은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일구어진 결실들입니다.

이제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줄 때입니다. 서운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 앞으로 가겠다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아닙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워야 YTN號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그룹도 좋고 기수별 만남도 좋습니다. 품은 생각을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새해 YTN의 어젠다는 '상식 · 정의 · 원칙, 바로 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YTN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사회의 얽힌 갈등은 풀고 대한민국號가 나아갈 길을 바로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을 듣고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아픈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 일어나기 쉬운 '편 가르기'와 '내 생각과 다르면 적' 이라는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은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YTN이 사회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내에서부터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손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YTN 가족 여러분!

2017년 새로운 출발선에 선 오늘,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2017. 1. 2
YTN 대표이사 사장

조준희

2017 YTN 어젠다 _ 상식 · 정의 · 원칙, 바로 서는 대한민국

언행일치 (言行一致)

정치윤 | 보도국 영상편집부

"나 오늘 광화문 갈라고 서울행 탔다. 거기서 볼래?"

지난해 11월, 부산에 사는 동창이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촛불집회 현장에서 반창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갓난애 재우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다른 친구는 식구끼리 돌아가면서 참석하기로 했는데 우리 때문에 연달아 나왔다며 각자가 참가하기까지의 곡절을 자랑삼아 풀어놓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궂은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나온 시민이 190만 명이었답니다.
아마 190만 명 중에 나오기가 편하고 쉬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빗속을 뚫고 나온 사람들은 몹시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무슨 놈의 나라가 원칙도 없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화두는 그 사회의 콤플렉스라는 말을 '정의'라는 단어를 두고 떠올리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회사에서 어젠다 공모 게시문을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지속 보도하기 위한 사회적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도 또렷한 나머지 이렇게 간단히 적어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노트에 적어보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의 조합일 뿐, 현실에선 어차피 안 되는 일로만 받아들여질 것 같았습니다. 길게 풀어써보고, 어떤 말은 줄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초안으로 돌아 왔습니다.

'상식 · 정의 · 원칙, 바로 서는 대한민국'
물론 말처럼 행동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와 합리주의가 역사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국민들을 분노케 한 지점은 '반칙 잡는 심판이 반칙해도 되는가', '헌법 수호하는 공직자가 헌법가치를 훼손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법을 이용하기 전에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발전해 나갈 터를 닦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편, 우리 회사도 마음 편한 관찰자의 입장은 아닙니다. 역사가 퇴보했다는 비판 중에 언론이 제일 퇴보했다는 말이 소수의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YTN은 언론사입니다. 그간 우리 나름대로 해온 노력에 스스로가 당당하든, 당당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청자인 국민의 평가는 싸늘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아니니까 달라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달라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경험으로 압니다. 영상편집 일을 하면서 가장 고역스런 부분이 제 딴에는 치열한 고민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다시 고치라는 지시를 받을 때입니다. 먼저, 고쳐야 할지를 스스로 인정하기부터가 어렵고, 마음을 먹고 수정하려 해도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했던 일 또 다시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경험해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술사학자 유홍준 박사도 새집 짓기보다 헌집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대로 고치려면 애초에 쏟았던 노력의 두 배 이상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번 지을 때 두 번 고치는 일 없도록 잘 짓는 것이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고쳐야 할 상황에는, 더는 쉬운 길을 찾거나 눈가림 하지 말고 처음 지을 때 보다 두 배로 노력할 각오로 임해야 비로소 제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우리가 한 번 지을 때 뉴스를 잘 지었는지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처음 뉴스를 지을 때 보다 두 배의 노력을 할애해서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17년 어젠다를 상식과 정의와 원칙의 관점에서 '바로 서자'로 정했습니다. '바로 서자'는 말은, 앞서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회사가 정한 어젠다에는 '화합, 힘 모아, 나누는 행복, 소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분열했던 적은 없는지, 끼리끼리만 힘을 모으진 않았는지, 불행을 나눠준 기억은 없는지, 잘 들리는 말을 다른 말로 듣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바로 서는 방법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또한, 수차례의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또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광고에 나오는 카피처럼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밖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이맘때 국민들로부터 "'바로 서자' 하는 언론사부터가 '바로 섰네'" 라고 인정받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때론 광고주 편에 서는 사람들

이성근 팀장 | 마케팅기획팀

새해 첫 사보에 마케팅국 업무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의뢰가 있었다.
난감했다.
마케팅국의 특성상 매출이니, 목표대비 실적이니, 이런 숫자는 외부로 나가기엔 좀 곤란한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다.
또한, YTN만의 영업방법,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 등도 마케팅국 입장에서는 보안이 필요한 중요한 영업기밀인데 말이다.

車떼고 包떼고, 무슨 내용으로 글을 쓰나? 좀 난감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빌려 마케팅국의 업무를 조금 더 알리고,
YTN 구성원들의 작은 관심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몇 자 적어 본다.

마케팅국에도 제보가 중요하다

"YTN NEWS의 강점은 제보와 속보에 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의 보도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결론이다. 제보의 중요성은 마케팅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YTN 구성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듣게 되는 사소한 정보, 개인적인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듣게 되는 광고 집행 정보 등이 아주 중요한 제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00부처에서 특정 정책에 대한 홍보가 안돼서 고민이 깊다는데?" "어느 기업에서는 특정 이슈로 대대적인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연히 취득하게 되는 정보를 마케팅국에 제보하는 관심만으로도 마케팅국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마케팅국에도 '단독'이 중요하다.

YTN NEWS에서 '단독보도'는 정말 중요하다. YTN의 차별성을 알릴 수 있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YTN 단독집행 광고'도 정말 중요하다. 'YTN 단독집행 광고'는 치열한 무한경쟁의 광고시장에서 'YTN 광고의 장점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된다. 그런 이유로 '대리운전, 꽃배달, 프랜차이즈, 썬팅필름' 등 'YTN 단독집행 광고'와 '광고주'는 마케팅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 된다.

마케팅국에도 제작 시스템이 있다

마케팅국에는 캠페인과 CF제작이 가능한 20년 이상 경력의 CF감독과 카피라이터가 근무하고 있다. 1년에도 40여 편의 '캠페인'과 '광고'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제작 시스템은 '누군가의 정책 홍보 캠페인'에서도, '누군가의 상품 CF제작'에도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한 YTN만의 큰 장점이다.

앞에서 말한 제보만으로도 회사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캠페인 및 CF 자체 제작 시스템'이 있어 가능한 이야기이다.

마케팅국에도 편성 전문가가 있다

마케팅국는 독특한 편성 전문 인력이 있다. 광고 시청률을 분석하는 광고 편성 전문 인력이다. 광고대행사와 시청률 조사회사 출신의 미디어플레너가 광고주의 광고 편성을 도와주고 있다. 광고주가 원하는 타깃 시청자의 시청시간대 분석, 광고 효과 분석 등의 서비스로 광고주의 YTN광고 만족도를 높이고, YTN 광고를 통한 광고주의 사업성공을 돕고 있다.

끝으로, 마케팅국에는 가끔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열정적인 YTN직원들이 있다

마케팅국에는 '광고주의 사업 성공이 곧, YTN 광고의 성공'이라는 신념으로, 광고주의 사업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마케팅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때론,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회사에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YTN식 표현으로 '이야기 안 되는' 내용을 무리해서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는 며칠간의 고민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낸 경우도 있었다. 진정한 'YTN 광고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마케팅국의 핵심 업무'에 다른 부서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YTN 마케팅국은 2017년에도
더 많은 광고주의 사업성공을 통해,
더 많은 YTN 광고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성공사례를 통해 'YTN 광고의 차별성'을 알리고,
또 다른 새로운 광고주를 영입해야 합니다.
YTN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잊지 못할 이야기들… "우리는 미래를 봤다"

조성호 기자 | 보도국 정치부

2016년 11월 7일 YTN은 박승주 당시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서울 도심 '굿판' 참석과 저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튿날에는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준비했다. 보도 사흘째인 11월 9일 박 내정자는 논문 표절을 인정하면서 물러났다.

기자는 기사로만 말하는 법.

이 지면을 빌려서는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를 몇 개 소개하겠다.

• 밤을 지새우는 타자 소리

"타닥, 타닥, 타닥, 타닥."

자정을 넘긴 시각, YTN 3층 귀퉁이 회의실. 적막한 가운데 타자치는 소리만 들려온다. 안에는 퇴근을 잊은 기자 5명이 앉아있다.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뚫어져라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자판을 두들기는, 이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정답은 그냥 받아치기다. 뭘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낡은 논문 175쪽을 그저 받아치는 데 사건팀 캡부터 수습기자까지 5명이 달라붙었다. 박승주 내정자의 논문을 분석하는 작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취재팀이 찾은 지난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은 사진 파일뿐이었다. 표절 검색기를 돌려야 하는데, 글자만 따로 뽑아낼 방법이 없었다.(설령 있다고 해도 배우는 시간도 고려해야 했다.) 그렇게 무작정 받아치기를 시작했다. 중간 중간 기사를 쓰고, 손이 비는 사람은 논문을 복원했다. 이틀 동안 그러고 나서야, 박 내정자의 논문 표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는 아내를 제일 먼저 떠올렸다.

책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기겠다. 박승주 내정자의 '사랑은 위함이다'란 책이다.

"하늘세계에 저장된 정보와 관련해 필자가 체험한 바가 있다. …(중략)… 명상을 하는데 상투를 하고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중략)… 노인은 전봉준 장군이었고, 그 책은 정조 때의 '일성록'이었다."

국가 안전 정책과 해양경비, 소방을 총괄할 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될 만한 인물의 생각이라고 믿기는 어려웠다. 어쨌든 책을 찾아야 했다. 일단은 그림을 찍어야 했고, 이 사람의 생각이 정말 미치도록 궁금했다. 절판된 책은 한 권 있었다. 모 여대 도서관에…. 취재팀의 권 모 기자는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 언론사의 기자이면서, 지금은 휴직 중인 그의 아내가 마침 그 여대 졸업생이었던 것. 아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사이, 권 기자를 태운 택시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취재팀 손에 책이 들어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 남짓. 가족의 소중함을 재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여담이지만, 박 내정자는 취재팀과 통화에서 "생생하게 전봉준 장군을 봤다"고 말했다. 다만 책 내용을 묻자 "전부 한자로 돼 있어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 "굿판이 뭐가 문제인데…."

책을 찾은 뒤 취재팀은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 박승주 내정자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굿판'에 참석했다는 내용. 실제 박 내정자가 찍힌 영상까지 찾아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이거다" 싶었다. 하지만 바로 보도할 수 없었다. 물론 '샤머니즘'이 걸치면 매우 샛노란 뉴스거리. 그런데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고려해야 했다. 박 내정자의 행사가 토속 신앙이나 일반적인 행사와는 거리가 먼 이른바 '사이비'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토속 · 무속 신앙 관계자 수십 명과 통화해 자문을 구하는 산통 끝에 비로소 보도가 시작됐다.

• 내가 이러려고 기자를 했나…

사실은 부끄럽게 시작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시국에 이렇다 할 기사 하나 내놓지 못한 반성을 담은 취재였다. 취재팀 한 명, 한 명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하는 자괴감 속에서 일해야 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밝다. 신 모 기자는 눈부신 논문 분석 능력을 선보였고, 권 모 기자는 인터뷰이를 자극해 원하는 답을 끌어냈다. 변 모 수습기자는 선배 5명의 밀착 지원 속에 특종 기사로 입봉하는 역사를 이뤄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위에 소개한 몇몇 경험들이다.

무엇보다도 결정적 실마리를 던져 준 정치부의 기둥 이강진 선배, 그리고 한해 무려 100건 넘는 크고 작은 단독 보도를 사실상 모두 만들어낸 이만수 캡틴, 사건팀의 필요충분조건 강진원 바이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선중 사건데스크 이하 사건팀 기자들은 오늘도 퇴근을 잊고 있을 것만 같다. 사건팀이 지금처럼 굳건하다면 또 다른 시대에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도 같다.

"YTN Life와 늘 푸른 인생을!"

허겁지겁 내달려온 240일!
2017년 새해 첫날 주전공을 '날씨'에서 '생활정보'로 바꾸고 새롭게 깃발을 올린 「YTN Life」가 지나온 간단치 않은 여정이다.
선진국에선 잘 나간다는 날씨 전문 채널이지만 좁은 땅덩어리라는 한계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탓에 제 뜻을 제대로 펴보지 못한 「YTN 웨더&라이프」가 운명적인 개명을 하게 됐다.
「YTN Life」는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내실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시청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채널 운영 합리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승희 편집위원 | 보도국

걸어온 길 (YTN weather는~)

1995년 개국한 '뉴스' 전문채널에 이어 2011년 태어난 또 하나의 전문채널! 이번엔 '날씨' 전문 'YTN 웨더'! 생생한 날씨 정보를 라이브로 전달하며 "뉴스는 YTN, 날씨도 YTN 웨더!" 라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소비 환경 탓에 '날씨 정보'의 희소성은 사라지고, 결국 'YTN 웨더&라이프'를 거쳐 개국 6년 만에 「YTN Life」로 거듭나게 됐다.

• YTN life 탄생 설화

지난해 5월 웨더라이프국에 자리를 옮기자마자 느낀 분위기? "과거는 과거고, 문제는 지금이다!" 채널 재도약을 위한 미동이 느껴졌고, 곧바로 변신을 위한 정중동이 시작됐다. 솔직히 별도의 자회사 채널이 아니어서 채널 경영 여건이 母채널(YTN)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내외 여건 악화 속에 채널이 최소한 '독자 생존'은 가능할 수준의 여건은 돼야 채널 존재에 대한 물음(?)은 없겠지' 라는 다소 수준 낮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우왕좌왕 하던 때다. 돌이켜보면 '뉴스조차 수익성이 큰 콘텐츠가 아닌데 막연히 생활교양으로 옷만 갈아입는 것으로 과연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스런 회의론도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결국 느낌으로만 일을 도모할 수는 없는 법! 〈생활교양〉과 〈연예오락〉 두 갈래 길을 놓고 제작 능력과 콘텐츠 수급 여건 등 다양한 잣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생활정보 (교양) 채널로 가닥을 잡게 됐다. 하지만 이런 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직전 웨더센터장으로 채널을 지휘하면서 느꼈던 속 깊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건네주신 현 미디어사업국장 김호성 선배와, 전폭적인 그러면서도 체계적인 전략을 꾸준히 마련해 준 현 사이언스TV국장 채문석 선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기록삼아 적어본다.

• 가보지 않은 길 (YTN Life는~)

보도 외 분야는 사실 등록제여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진입이 꽤 자유로워 언제든 방송 분야 변경도 가능한데다 연예오락 분야에선 제작 경험과 콘텐츠 도입 비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확신이 없는 우리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안분지족하고 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머지않아 여건만 갖춰지면 숨겨놓은 발톱을 꺼낼 용의는 있지만…. 그런데 채널 변경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YTN 자매 채널이라지만 YTN Life는 엄밀히 말해 '뉴스나 보도' 콘텐츠는 다룰 수 없다는 엄밀히 말하면 YTN 뉴스 콘텐츠는 아예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쉬운 예로 속보나 긴급뉴스의 경우도 YTN Life에선 방송 불가! 굳이 재활용 하겠다면 '소식, 정보…' 이런 식으로 재가공 한다면 모를까.

'YTN Life'가 당면한 미션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다.

첫째, 수익성 강화!
그래야 채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됐고, 또 채널 변신의 이유이기 때문.

둘째, 로우 채널(low channel) 이동!
그래야 시청자에게 존재 가치를 알릴 수 있고, 또 수익과도 직결되기 때문.

셋째, 채널 운영 합리화!
필수 인력으로 채널을 운영해야만 그나마 수익을 일굴 수 있기 때문. 너무 "수익, 수익"해서 가슴이 쬐끔 아리다. 하지만 어쩌랴 곳간이 차야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구입도 해야 즐겨 쓰는 오글거리는 멘트인 '프리미엄 생활정보 채널'이 될 수 있는 걸. 그럼 'YTN Life'가 새롭게 시작하며 준비한 메뉴를 맛만 보시라고 소개하겠다. 아마 타깃 시청자층을 대충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 YTN Life 야심 프로젝트 Big 3 또는 4

먼저 〈라이프 백과사전〉! 60분물 프로그램으로 최신 그리고 시청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건강 이슈를 다루는 '건강 365'와 생활 속 다양한 상황을 법의 잣대로 풀어보는 '이럴 땐 이런 法'이 각각 25분물로 포함된 킹왕짱 채널 대표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라이프 백과사전 방송 : [화] 07:00, 14:00, 22:00
– 건강 365
• 제작 : 김진아 PD, 나지연 AD, 한유리 AD
• MC: 장원석

– 이럴 땐 이런 법
• 제작 : 배민하 PD, 김예은 AD, 한유리 AD
• MC: 이세나

〈브라보! 청춘 클럽〉!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65살 이상 고령자가 17.5% 이상) 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시청자들에게 아름답고 현명한 노년 혹은 제2의 삶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프로그램이다. 시니어들의 관심사인 건강, 먹거리, 여행, 뷰티, 패션 등을 비롯해 인생 2막에 필요한 정보까지 시니어들에게 행복한 삶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내용들을 전한다.

브라보 청춘클럽 방송: [금] 06:00, 10:00, 16:00, 20:00
- 제작 : 차순길 PD, 이승아 AD, 허정미 작가
- MC: 김수현

마지막으로 명실공히 전국적으로 꽤 많은 마니아를 보유하고 있는 〈구석구석 코리아〉! 이미 다녀온 곳들을 왜 다시 갈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큼 발랄한 외국인 처자 (파라과이 출신 아비가일)가 똑 부러지는 한국어 실력으로 우리도 미처 몰랐던 우리의 맛과 멋을 소개하는 그 이름도 거창한 '긴급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다.

구석구석 코리아 방송: [금] 17:40
- 제작 : 한택원 PD, 이동건 PD
- 작가 : 전현지, 이혜진
- 진행 : 아비가일 알데레떼

• 오래된 미래?

이렇게 공식적인 지면에서 함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오만불손한 것인지 알지만… "YTN Life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있다!" 무슨 근거로? 그 이유는,

하나, 2011년 채널 출범 이래 거쳐 간 선후배 분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이젠 열매를 맺을 때란 사실!

둘, 나름 타깃 시청자층을 나름 정확해 선택했다는 사실!

셋, 무엇보다 어느 부서보다 젊은 제작진이 뭔가 이뤄내 보겠다는 단단한 각오라는 사실!

끝으로 某 채널에서 시청자들에게 시청률로 인정받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을 일종의 마중물로 쓰려고 하는데, 시청자들의 '행복한 하루와 늘 푸른 인생' 설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다.

• YTN 역사에 찍은 작은 점들~ 그리고 역사는 계속된다!

새 일을 도모하는 것도 DNA 지도에 숨겨져 있는 걸까? 22년 전 1995년 YTN 개국에 이어, 2004년 YTN 인터내셔널(현 YTN 월드)과 2008년 YTN 라디오 그리고 이번엔 YTN Life (라이프)! 채널 시작점마다 발을 담가 함께 동분서주했던 당시 선후배들의 얼굴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간다.

「YTN 미디어」라는 큰 숲에 작은 소나무 한 그루로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모쪼록 새 채널도 '한국의 뉴스채널 YTN'과 함께 '늘 푸른 방송' 영원히 함께 하길 빈다.

(• 편집자 주 : 연초 인사발령 전에 작성된 글임을 알립니다.)

YTN에 바란다

반장식 YTN 시청자위원장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YTN은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서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동안 혁신을 통해 방송뿐만 아니라 경영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YTN의 시청자위원장으로서, YTN이 'Yes! Top News'라는 채널 브랜드에 걸맞은 최고의 방송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

먼저 뉴스 콘텐츠의 내용과 구성,

•첫째, 다양성과 균형감을 높여야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되, 한 분야에 치우침이 없기를 바란다. 현재 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정치나 사건 사고 뉴스가 많고, 경제 분야, 기업 소식,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는 적은 편이라고 느껴진다. 최근 밝은 뉴스, 모범 선행 사례, 생활 뉴스, 아름다운 자연 현상 등의 내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둘째, 지식 사회에서 유용한 정보의 습득, 확산 기여도를 높여야

현재 '원포인트 생활상식',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재미있는 낱말풀이' 등 이른바 'YTN 5종 세트'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콘텐츠를 더 강화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셋째, 정치 경제 사회의 새로운 이슈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주도함으로써 여론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발생 기사에만 끌려 다니지 말고, 다양하고 심층 분석이 뒷받침된 기획 기사를 늘려서 어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한다.

다음으로 콘텐츠의 전달 측면,

•첫째, 앵커와 기자가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앵커나 기자의 개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그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 향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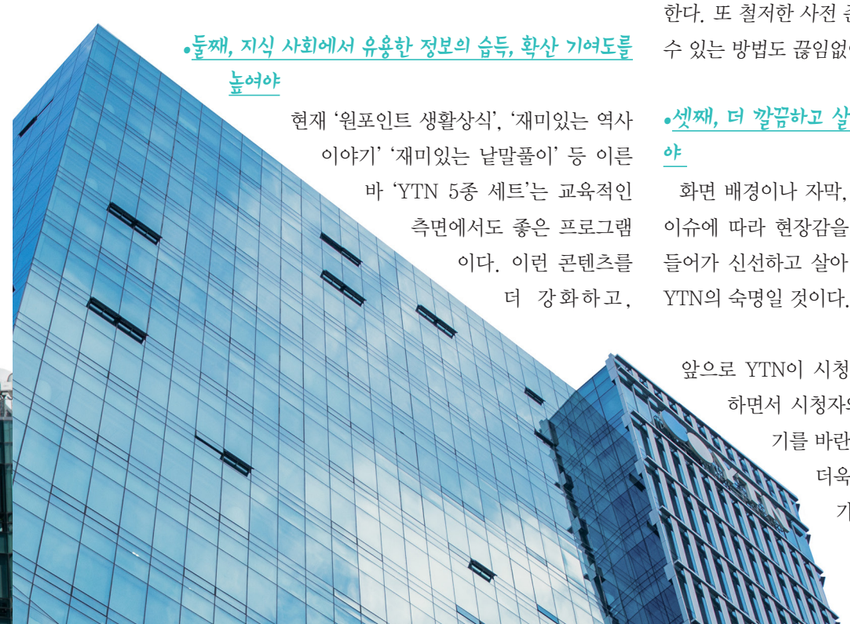
•둘째, 타사와 차별화된 전문가 풀을 갖기 위해 애써야

어느 이슈가 나오든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패널들 대신, 다양한 분야별로 시청자들에게 전문적이면서도 쉬운 표현으로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 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셋째, 더 깔끔하고 살아 있는 화면으로 시청자들의 눈을 끌어야

화면 배경이나 자막, 영상 그래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슈에 따라 현장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 신선하고 살아있는 뉴스를 전달하는 것은 보도채널 YTN의 숙명일 것이다.

앞으로 YTN이 시청자에게 더욱 편안하게 다가가고 소통하면서 시청자와 함께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2017년에도 YTN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큰 발전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경험적 법칙에 입각한 2017년 한국 대선 전망

김형준 명지대 교수 | YTN 객원 해설위원,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2017년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10년 정권 교체 주기설'(10 year's pendulum)이 이번에도 통용될 수 있을까? 여부이다.

1988년부터 1998년 10년간 보수(노태우－김영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진보(김대중－노무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보수(이명박－박근혜)가 정권을 차지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정권 교체 8년 주기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는 대표적인 스윙 주(swing state)인 오하이오 주를 차지해야 승리한다. 오하이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피로감(fatigue)이 쌓이면 지지를 바꾼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7년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이런 '피로감 가설'이 통용될지 지켜봐야 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대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빅 데이터는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의 3대 요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빅 데이터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를 의미한다. 이런 빅 데이터에서 뽑아낸 유용한 정보들은 일종이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깨는데 유용한 도구다. 선거에서도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유권자들이 어떤 이유와 경로를 거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클리프턴 미국 갤럽 회장은 "빅 데이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해석이고, 거기서 얻는 정보를 잘 활용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거는 평론이 아니다. 선거는 과학이다. 과학이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 대선에선 몇 가지 경험적 법칙이 있다.

첫째, 시대정신의 법칙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패배한 것은 시대정신에 졌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은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 과제와는 다르다. 92년 대선에서 문민정부 수립, 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2002년 대선에서 '변화와 개혁'이 시대정신이었다. 과연 2017년 대선에서 부각될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아마도 공정, 통일, 통합, 정치 정상화(협치) 등이 시대정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대정신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가 승리한다.

둘째, 연대의 법칙

선거는 구도다. 구도가 어떻게 짜지느냐가 결정적 변수가 된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DJP 연대,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 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승리 구도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기문 총장이 귀국 후, 어느 세력과 연대하느냐가 변수다. 이른바 개헌을 연계로 한 반문재인 세력을 규합해 '빅 텐트'를 만들면 대선 구도는 문재인 대 반기문의 양자 구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처럼 '48% 대 52%'의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누가 52%로 승리할지는 앞으로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셋째, 프레임(frame)의 법칙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 수구 · 귀족, 노무현 = 개혁 · 서민'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됐고, 결국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만약 반기문－문재인 두 후보가 양자 구도로 격돌하면 몇 개의 축(프레임)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반기문 = 정치 아웃사이더 · 개헌 · 글로벌 리더 · 안보(보수 우파) · 통합, 문재인 = 정치 인사이더 · 호헌 · 국내 리더 · 평화(진보 좌파) · 공정'의 대립 축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누가 '기득권' 세력인지, 누가 '미래' 세력 인지를 기준으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대선에서 '대망론'도 '대세론'도 없다. 현재의 대선 지지도는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 한국 대선 판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바람이 불지 아무도 모른다. 여하튼 한국 대선에서 빅 데이터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대선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선거 전략을 짜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모바일 혁신의 선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강성웅 편집부국장 | 보도국

모두가 모바일 혁신의 길을 묻던 때 우리는 '제보'를 떠올렸다.
'제보'라면 YTN이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YTN = 뉴스 = 제보라는 공식.
이것은 YTN이 지난 20여 년 동안 쌓아올린 하나의 금자탑이다.
지금은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YTN의 제보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긴 것이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편한 제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그리고 접수된 제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것은 제보를 하나의 '데이터'로 축적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서 TV 온에어와 디지털부서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YTN 제보 콘텐츠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YTN의 '제보자 커뮤니티'의 형성을 시도했다.

커뮤니티의 주역은 '모바일 저널리스트'(Mobile Journalist, MJ)들이다. YTN MJ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 저널리스트'다. 깨어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MJ가 될 수 있다. 이것은 YTN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참여 저널리즘'(Participational Journalism)이다.

YTN의 모바일 제보시스템은 2015년 초에 1차 구축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나서 대략 6개월 정도가 지나자 첫 대박이 터졌다. 페이스북에 올린 YTN의 '제보영상'에 수만 건의 댓글이 붙기 시작했다. 댓글 수만 건은 네이버의 초기 화면에 걸렸다 해도 달성이 어려운 기록이다.

이후 이런 '빅샷'이 연속적으로 나왔다. YTN은 페이스북에서 단숨에 국내 주요 언론사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이후에도 YTN은 페이스북에서 정교한 테크닉을 발휘하면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제보영상'은 제보자의 영상을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로 가공한 것이다. 현장음과 육성 그리고 제보자의 증언 등으로 영상구성물을 만든 뒤 자막을 넣어 완성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기자가 아닌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하나의 영상 기사를 작성하고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의 제작형태와는 차별화 된다. 요즘 경쟁사들이 너도나도 '짝퉁' 제보영상을 만들고 있다.

YTN의 모바일 제보 시스템을 통한 참여 저널리즘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아직 TV 중심 사고에 머물고 있다. 40대 이하에서 TV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은 뚝 떨어진다. 그 빈자리를 모바일이 채워가고 있다. YTN은 TV와 모바일 두 분야를 동시에 '혁신'하는 묘수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갈 길이 정말 멀다.

모바일 제보 시스템이라는 '틀'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놀라운 영상이나 훈훈한 감동을 전하는 것만으로 저널리즘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이번 수상은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의 출발역이다.

관훈언론상에는 권력감시, 사회변화, 국제보도, 저널리즘 혁신 등 4개 분야가 있다. 이 가운데 YTN이 수상한 분야는 '저널리즘 혁신' 부문이다. 권력감시 부문에서는 한겨레, JTBC, TV조선 3사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취재,보도함으로써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언론사들이다. YTN도 저널리즘 혁신의 선두에 나선 것을 토대로 더 중요한 문제를 천착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YTN의 제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장님을 비롯해 YTN 및 YTN 플러스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보는 YTN의 자산이다.

관훈언론상은 수상자 6명 (황선욱 YTN 디지털센터 본부장, 강성웅 보도국 편집부국장, 서정호 YTN 디지털센터 모바일 프로젝트팀 팀장, 권준기 YTN 디지털센터 전 디지털뉴스팀 팀장, 이승현 YTN 디지털센터 디지털뉴스팀 팀장, 양일혁 보도국 뉴스편집에디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YTN이 받은 상이다.

하루가 모자라…

사건팀이 돌아본 2016년

최기성 기자 | 보도국 사회부

보도정보시스템 사회부 기사 관리로 들어가면 '사회부 단독 보도 목록'이라는 칸이 있다.
사회부 기자의 단독보도 취재 경위, 다른 매체 반향, 후속 조치 등을 기록하는 곳이다.
수상 소감을 쓰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작성된 내용을 전부 보려고 한참 동안 스크롤을 내려야 했다.
보도국에는 다양한 기자가 있다.
취재를 잘하는 기자, 정보력이 좋은 기자, 기사를 잘 쓰는 기자, 기획력이 뛰어난 기자, 생방송에 강한 기자, 감각이 탁월한 기자 등이다.
선배들은 하나만 잘해도 기자로서 합격점이라고 하지만, 사건기자는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은 해야 버틸 수 있다.
그만큼 바쁘다.

사건기자 24시

잠긴 경찰서 기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켠다. 새벽 6시면 반복되는 YTN 사건기자의 일과다. 사건 · 사고는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터라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산다. 단체 대화방에는 매일 수백 건의 메시지가 오간다. 별을 보고 출근해 달을 보며 집에 가는 일상이 반복된다. 일이 끝났다고 긴장을 풀 수도 없다. '총격범 성병대' 사건 때,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건기자들은 귀가 또는 회식하다 다시 현장으로 출동해 새벽까지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사건기자의 숙명과 즐거움

사건기자는 경찰서로 출근하지만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취재 대상이다. 살인범, 조직폭력배, 사기꾼 등을 일상처럼 마주치다보니 특이한 경험을 종종 한다. 모텔로 취재진을 부르더니 갑자기 벌거벗고 샤워를 하는 제보자도 있었고, 피해자라고 주장해 만나보니 악질 조직폭력배 두 명이 앉아 있었던 일도 있다. 그래도 힘이 나는 이유는 기사가 나간 뒤 느낄 수 있는 보람과 파급력 덕분이다. 야구해설가 하일성 자살 1보, 최순실 엘루이 호텔 투숙 등 단독보도가 나갈 때마다 대형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은 들썩였다. 다른 언론사들은 팩트 확인도 하지 않고 YTN 보도 내용과 방송화면을 그대로 받아썼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YTN 보도 내용으로 요동쳤기 때문이다. 뒤늦게 우리 기사를 보고 현장에 달려오는 타사 취재진을 보는 일도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다.

1년 동안 남긴 특종

지난 2016년, 사건팀 기자들이 쓴 단독보도는 180건이 넘는다. 2016년 1월 입국이 거부된 중국인들이 불과 14분 만에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유유히 사라졌다는 보도는 모든 언론사가 받아썼다. 난치병 '모야모야병'을 앓던 대학생이 강도를 뿌리치다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도 최초로 알렸다. 군대에서 주사를 잘못 맞아 왼팔이 마비된 병장 사연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를 짚어내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와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의 전국구 마약 판매상 검거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해 타사에서 영상 제공 요청이 잇따랐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신생아에게 미납한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온 황당한 사연을 보도해 대책도 끌어냈다.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자질을 검증해 청문회도 열기 전에 YTN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실명 공개" 사건기사 보도 원칙

사건팀은 실명 보도를 지향한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취재원이 보도국으로 찾아왔다. 검찰 고위간부, 대기업 임원 등이 기사화를 막아보기 위해 보도국으로 오거나 1층 로비에서 기다리다 돌아간 적도 있다. 취재원들이 "YTN은 종일 방송되지 않느냐"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한다. 종일 방송하는 만큼 취재는 촘촘해야 한다. 'SPC그룹 달걀 사재기'나 '한화 셋째 아들 김동선 음주 폭행'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팩트가 단단하면 가차 없이 실명을 공개한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없다.

'팀워크'가 힘

사건팀의 가장 큰 장점은 '팀워크'이다. 상황이 터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달라붙어서 팩트를 확인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불이 나면 소방서, 경찰서, 제보자, 한전 등을 각각 맡아 내용을 파악한다. 내근자가 속보를 올리고 전화 연결을 준비하는 사이 현장에는 어느새 기자가 도착한다. 짧은 시간 안에 각자 업무를 나눠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보도는 결국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 속에는 사건팀 모두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제보가 다른 언론사와 같은 시점에 들어와도 YTN에서 1보를 할 수 있는 이유다. 취재는 고되고 노동강도도 센 것은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번 '연말 대상' 수상은 사건팀에게 큰 의미가 있다.

항상 물심양면으로 사건팀을 격려해준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YTN 사건기자만이 쓸 수 있는 기사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달의 자랑스러운 YTN인 상

11월 특종상

금상 _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굿판 참석, 논문 표절 의혹〉 보도

조성호 _ 사회부 최기성 _ 사회부 최아영 _ 사회부 권남기 _ 사회부 신지원 _ 사회부

은상 _ 〈비극의 재구성: 펀치볼 지뢰지도〉 연속 보도

함형건 _ 데이터저널리즘팀 김수진 _ 데이터저널리즘팀 이상엽 _ 영상취재1부

은상 _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이틀날도 체육 개혁〉 보도

조은지 _ 스포츠부

동상 _ 〈오패산 총격전〉 단독 보도

양시창 _ 사회부 김태민 _ 사회부 김영수 _ 사회부 이연아 _ 사회부 장명호 _ 영상취재1부 김한울 _ 영상취재1부

은상 _ 〈최순실 핵심 측근 차은택 행적 추적〉 보도

박희천 _ 국제부 북경지국

베스트편집상 • 동상 한경희 / 최연호 _ 영상편집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자료영상 발굴〉

공로상
- 금상 백상기 _ 콘텐츠사업팀 〈뉴스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 확보 및 저작권 산업 발전 기여〉
- 은상 이현수 _ 해외방송팀 〈저작권 없는 생방송(LIVE) 화면 국내외 송출 획기적 개선〉
- 동상 정경남 _ 기술기획팀 / 이규일 _ 구매팀 〈마이크로웨이브 손실보상금에 따른 수익 창출〉

12월

- 금상 방병삼 / 서영석 _ 제작팀 〈마을 이야기 3부작〉 제작
- 은상 김학묵 / 최계영 _ 영상취재 2부 〈한국의 야생화〉 시리즈물 제작
- 동상 김영록 _ 사이언스 TV국 콘텐츠제작팀 스페셜 〈아이엠 로봇〉 3부작 제작

우수프로그램상

- 금상 중계부 / 영상취재 1,2부 〈광화문 촛불집회 취재 지원〉
- 은상 김선영 _ 앵커실 / 김영훈, 이지은 _ 편집 4부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나이트포커스 시청률 상승 기여〉
- 동상 한기종 / 백승하 _ 매체협력팀 〈채널포지션 강화로 채널 경쟁력 증대 및 연간 프로그램사용료 인상으로 매출 확대〉
- 동상 장태민 _ 타워운영팀 / 박재범 _ 타워사업팀 〈서울타워 접근성 개선 및 임대 마케팅 공로〉

공로상

2016 YTN Award

특종상 • 대상 사회부 사건팀 〈안전처 장관 내정자 인사검증 등 연속 단독 보도〉

공로상 • 대상 나은수 / 최동숙 _ 자산운영팀 〈YTN 뉴스퀘어 임대 유치 공로〉

표창
- 이용석 _ 총무부 파견사원 〈중계차량 등 안전운행 및 중계방송 지원〉
- 김재만 _ 외부 〈고속도로 대형 화재 4건 동영상 및 목격자〉

우수프로그램상
- 이희수 _ DMB 편성제작팀 〈스포츠24〉 제작
- 신아람 _ 라디오 기획팀 〈한밤의 음악여행 및 다함께 중국어〉 제작 / 방송

공로상 • 박상현 〈교통정보서비스 사업 관리 및 매출 증대〉 공로

고성과자

민재영 _ 보도국 그래픽팀 **배민하** _ 편성제작국 편성제작팀 **정재기** _ 사이언스TV국 콘텐츠기획팀 **안성명** _ 사이언스 TV국 편성기획팀 **정현구** _ 기술국 중계부 **김봉덕, 이정형, 이근영** _ 타워사업국 타워사업팀 **이강규** _ YTN 웨더라이프국 기상그래픽팀 **김규남** _ 마케팅기획팀 **이광범, 장혜려** _ 총무국 총무팀 **최동숙** _ 총무국 자산운영팀 **전주영, 연진영** _ 보도국 영상편집부 **이현수** _ 글로벌센터 해외방송팀 **박형건, 장우석** _ 기술국 제작기술 2부

창덕궁 규장각 수사슴, Oil on Canvas, 162.2 x 130.3cm, 2014

사석원 작가

그림으로 쓴 우리네 역사와 삶의 기행기

홍경한 | 미술평론가

작가 사석원의 작품은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정겹다. 이질감 없는 포근함, 삶의 서사가 배어 있는 해학과 은유는 자연스러운 미소로 화답하도록 한다. 화려하지만 거부감 없는 색, 기운에 찬 붓질, 사랑스러운 형상이 겹치고 덧대어진 결과다. 일례로 그의 작품 〈목욕하는 호랑이〉는 무섭기보단 앙증맞고, 정유년을 상징하는 듯한 노란 닭은 뿌루퉁, 오동통하니 귀엽다. 2012년 작품 〈황소와 폭포 1〉에서처럼 우직하니 심통스런 '소' 그림이나 지혜의 상징인 부엉이를 담은 여러 작품들도 독특한 회해(詼諧)가 녹아 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그림이 익살스러운 건 아니다. 일곱 마리의 부엉이와 사슴이 등장하는 〈창덕궁 규장각 수사슴〉과, 설궁(雪宮)을 배경으로 파수꾼 부엉이들이 자릴 잡은 〈1776년 3월 창덕궁 후원〉과 같은 작품에선 우리네 역사를 재해석한 작가만의 시각이 묻어 있다. 전자는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이끈 정조 시대를 상징하며, 후자는 개인적 불행을 딛고 왕위에 오른 개혁군주인 정조 즉위 일을 제목으로 한 작품이다. 조선의 위엄과 품격, 아픔과 슬픔 등이 담담히 투영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비운을 달리한 명성황후의 넋을 기리기 위해 고종이 만든 향원정과 하얀 사슴을 병치시켜 어딘딘가모를 상서로움을 느끼게 하는 〈경복궁 서설〉은 역사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내레이션이 돋보인다.

어딘가 모를 쓸쓸함과 무게 있는 스토리, 그러면서도 우리 역사의 장면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거둬들여 꼼꼼하게 해석하는 사석원 작가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작업을 하진 않는다. 언뜻 민화의 넉넉함을 내보이면서도 자신만의 어법이 있다. 대학에서 동양화를 공부했지만 동서양의 경계 또한 무력화된 지 오래다. 텁텁한 질감과 의미부여 가능한 형상 등의 조형요소들은 지극히 본질적이지만 결코 어느 하나에 구속되진 않는다. 오히려 상상력을 축으로 구축과 해체를 반복한다. 심지어 작품을 그릴 때에는 잭슨 폴록마냥 캔버스를 바닥에 눕힌 채 유화물감을 겹겹이 쌓아 올린다. 시간의 내력만큼 물감의 층위도 다르고 그림 속 이야기에 따라 그의 작품 소재와 기법은 변화무쌍하다.

목욕하는 호랑이, 227.3 x 181.8 cm, Acrylic on Canvas, 2012

왕이 된 수탉, 72.5 x 60.5 cm, Oil on Canvas, 2005

조형방식이나 내용의 하중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대체로 그의 그림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늘 호랑이, 소, 당나귀, 사슴, 부엉이, 독수리, 쥐, 양, 거북이, 토끼, 원숭이, 개 등 각종 동물들이 독차지 한다. 물론 대중에게도 익숙한 주연은 의인화된 동물들이다. 이들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기호화되는 존재다. 한 사례로 〈1418년 경복궁 근정전〉에서의 흰 토끼는 영명하고 영발한 조선 4대 왕 세종대왕을 의미하며, 1418년은 세종이 즉위한 해임을 가리킨다. 세종은 곧 그에게 토끼처럼 올바른 판단과 결단력 있는 행동을 지닌 영특한 존재임 셈이다.

그렇다고 작가가 아예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아니, 애정도 면에선 동물 못지않다. 글 잘 쓰기로도 유명한 작가가 모 일간지에 연재한 수필 '사석원의 서울 연가(戀歌)'를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이 다양하게 투사되어 있다. 1970년대부터 작가의 눈과 정신을 포박한 시대의 흐름과 누구나 공감할만한 서민들의 삶이 페이지마다 꾹꾹 담겨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더구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의 동세와 표정, 맛깔스런 드로잉과 경쾌한 색감이 삶이라는 내용을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미술시장에서 사석원의 인기는 꽤나 높다. 인물, 동물, 풍경할 것 없이 인식 면에서 빼어나고 거부감을 갖지 않을 만큼의 친숙한 이미지 탓이 크다. 그러나 시장의 가치로만 판단하면 절반만 이해하는 것과 같다. 앞서도 거론했듯 그의 그림엔 우리네 정서가 배어 있고 진중한 역사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희로애락, 평등의 가치로 치환된 동물들을 통한 의식과 철학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사석원의 작품에 대해 '격'이 있다고 말한다. 회화라는 전통 장르로 동시대 미술의 무경계, 탈경계의 흔적들을 열람케 하는 작가로 평가한다. 뭐, 그릇된 시각은 아니다.

1776년 3월 창덕궁 후원 227.3 x 162.1 cm, Oil on Canvas, 2014

사 석 원 _ Sa, Suk Won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학사 및 동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국립파리8대학 석사과정 수학, 파리
- 주요전시 _ 고궁보월 古宮步月 〈가나아트센터, 서울〉 코리안 뷰티: 두 개의 자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서울연가 〈롯데갤러리 본점, 서울〉 검은 무지개 〈가나아트 뉴욕, 뉴욕〉 한국현대회화전, 인도 슬래드모어 현대조각전 〈슬래드모어 갤러리, 런던〉 등
  국내외 아트페어 및 그룹전 다수
- 수상 _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 작품소장 _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뮤지엄 산 (구 한솔 종이박물관), 금호미술관, 호암미술관, 동국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청와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한국은행 등

상암동에 뜬 경성 모던걸

방송원 장민정

때는 바야흐로 정유년 정월 초하루,
고요한 아침을 흔들어 깨우는
어느 한 여인의 낭랑한 목소리가
'아이스케키'처럼 꽁꽁꽁 얼어붙은
저기 저 한강물마저 녹여 버리는구나.

아아~ 눈부셔라!
상암동에 피어난 뉴우스 방송원,
바로 그 여인,
장민정을 소개하외다.

정리 | 김여진 앵커

협찬 | Creta 크레타 스튜디오
www.icreta.com / 02_3142_0010, 0070
촬영 / 임혜란 실장
디렉터 / 최재용 (커뮤니케이션팀)

Q. 개화기 모던걸과 21세기의 장민정,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개화기의 모던걸들은 양장 옷을 입고 단발도 하고 나름의 반항을 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죠. 제게도 그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전 정신과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내심 반항심도 있고요. 제가 회사 선배들에게도 반항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런 점이 공통적이지 않을까요?

Q. 개화기에 태어났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독립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애국심이 커서라기보다는 제가 불의를 못 참는 편이라 영화 '암살' 속 전지현처럼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의를 진짜 못 참아서 선배들이 차라리 검사를 하지 그랬냐는 말을 하시기도 해요.

Q. 뉴스를 진행할 때 모던걸의 기질이 어떻게 발휘되나?

제가 개그 욕심이 있어요. 뉴스 시간에 가수 이애란 씨의 백세 인생,'~라고 전해라'하고 노래도 불러봤고, 황정민 씨가 출연했을 땐 사투리 연기도 따라 해 봤죠. 나름 새로운 시도를 하며 도전하는 건데요. 남들은 다 부끄러워하는데 저만 안 부끄러운 것 같아요.

Q. 진정한 모던걸, 모던앵커가 되기 위한 나만의 노력은?

요즘 랩과 관련된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쇼미더머니'라든지 '언프리티 랩스타' 같은 프로그램이요. 랩 가사가 유독 잘 들리는 참가자들의 곡이 있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내 얘기를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앵커 멘트를 쓸 때 제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로 쓰려고 노력해요.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꼭 하려고 노력하죠. 시청자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다른 앵커들과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Q. 소싯적 연예인을 꿈꿨다던데?

어릴 적 유치원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노래하고 율동만 했대요. 끼가 있었던 거죠. 중학교 때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요. 한국 무용을 했던 터라 유연한 동작 몇 가지를 보여주니까 바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 소속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만뒀지요.

Q. 연예계에서 앵커로의 전향, 잘한 선택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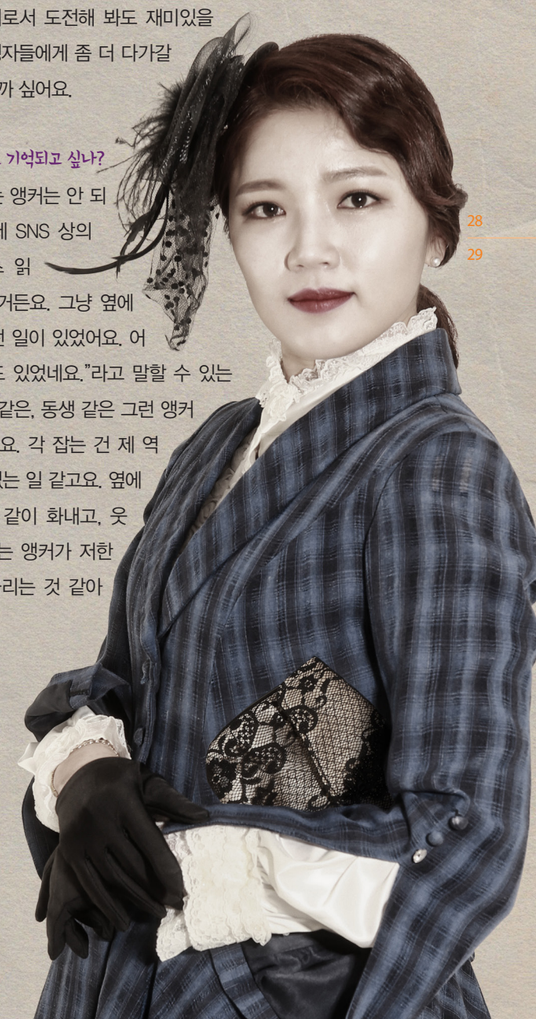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 노래 실력으로 괜히 어디 숟가락 얹었다가 욕만 먹었을 것 같고요. 황정민 씨의 사투리 연기를 따라 했을 때, 방송 나간 뒤에 담당 부장님이 절대로 연기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황정민 씨도 화를 냈고요.

Q. 앞으로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나중에 10년 뒤쯤 기회가 된다면 뉴스를 해설해 주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종편의 〈강적들〉, 〈썰전〉과 같은 프로그램이오. 요즘 많은 시청자들이 뉴스 뒷면을 얘기해 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성 앵커로서 도전해 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 시청자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Q. 어떤 앵커로 기억되고 싶나?

저는 멋있는 앵커는 안 되고 싶어요. 제 SNS 상의 표어가 '뉴스 읽어주는 언니'거든요. 그냥 옆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 이런 일도 있었네요."라고 말할 수 있는 친근한 언니 같은, 동생 같은 그런 앵커가 되고 싶어요. 각 잡는 건 제 역량에 할 수 없는 일 같고요. 옆에서 친근하게 같이 화내고, 웃고, 울 수 있는 앵커가 저한테는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유석현의 클래식 속으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위안과 안식을 주는 음악…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산이나 홍성에서 빠져서 가면 2시간도 안걸리는 곳.
청정 해안과 안면송이라는 키다리 소나무가 유명한 섬.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소대장 생활을 했던 안면도 얘기다.
당시엔 용산 시외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천안, 온양, 예산, 서산을 거쳐 태안까지 와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안면도까지 가는데 5시간은 족히 걸렸다.
태안에서 안면도까지는 비포장이어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흙먼지를 마셔야 했다.

근무하던 소초는 안면도 한 복판에 있는 승언리에서 걸어서 30분은 더 들어가야 하는 바닷가 언덕 위에 있었다.

1년 4계절을 보내면서 바다는 원없이, 지겹도록 볼 수 있던 곳. 소대원들은 낮에 잠을 자고 저녁 먹고 나서 어둑어둑해지면 M16 소총과 수류탄, 크레모아 등을 갖고 바닷가 곳곳에 투입돼 밤새 경계근무를 섰다. 분명히 후방지역이었지만 근무형태는 전방과 똑같았다.

늦여름 비가 내리던 밤, 인터폰을 통해 100미터 전방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격명령을 내린 뒤 잠시 간첩을 잡은 공로로 헬기타고 집에 가는 꿈(?)을 꿨었다. 총에 맞아 죽은 물체는 간첩이 아니라 암소였지만 당시 대대장으로 부터 근무를 잘 섰다며 5천원을 상금으로 받아 소대원들과 함께 막걸리 파티를 했다.

소대장 근무를 마치고 태안 대대본부에서 본부중대장을 할 때에도 주말마다 국방색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 소초와 분초로 나가 1박 하면서 근무상태를 체크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충남 서부 해안의 바닷가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다. 몽산포, 천리포, 만리포, 학암포, 신두리 모래언덕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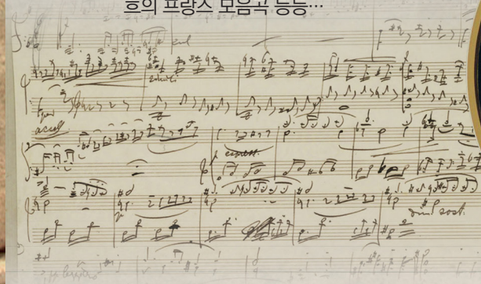
지금도 가끔 서해안 바닷가에 가게 되면 적의 침투에 취약한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게 된다. 소대장 땐 월광(月光)과 물매수, 파고(波高)까지 감안해 근무해야 했다. (*'물매'는 밀물과 썰물 때 바닷물이 밀려오고 나가는 정도를 말하며 물매수가 클수록 적의 침투가능성이 높다)

당시 안면도는 말 그대로 무공해 청정지역이었다. 지는 해와 노을이 특히 아름답던… 서울에서 오는 전파를 가로막는 산악지역도 없어서 FM 방송이 깨끗이 들리던 곳!

내무반에는 카세트 라디오에서 '고추잠자리'를 비롯한 당대의 톱가수 조용필의 히트곡들이 너무 자주 흘러나와 다른 가수들의 곡들은 정말로 '못찾겠다 꾀꼬리'였다.

나도 물론 가요와 팝송도 좋아했지만 한 평도 안되는 소대장실에서 조그만 트랜지스터라디오를 통해 듣는 고전음악이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됐다.

조그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와 드보르작의 현악사중주,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등등…



그중에서도 어쩌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이며 긴장의 연속인 군생활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클라리넷은 18세기에 태어난 오래된 악기지만 작곡가들에겐 인기가 없었다. 아마도 유머가 넘치는 익살스런 음을 내다가도 어떤 때는 신비로운 우울함을 보여주는 특유의 음색 때문이었을 것이다.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는 클라리넷의 음색을 좋아했지만 독주악기로서의 가능성에는 의문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아노 협주곡을 27개나 쓰고 바이올린 협주곡을 5개 작곡했던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까지도 클라리넷 독주곡이나 협주곡은 단 한 곡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차르트가 만년에 극도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도와준 친구이자 빈 궁정악단의 클라리넷 수석 주자였던 안톤 슈타틀러의 부탁이 없었다면 이 불후의 명곡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모차르트는 슈타틀러의 부탁으로 또하나의 걸작인 클라리넷 5중주도 작곡했는데 브람스의 클라리넷 5중주와 함께 이 장르에서 명곡으로 손꼽힌다.)

이 곡을 작곡할 즈음 모차르트의 사생활은 형편없었다. 아내는 병들고 가계는 쪼들려 빚만 늘었고 육체는 급속히 쇠약해 갔다. 아마 모차르트 본인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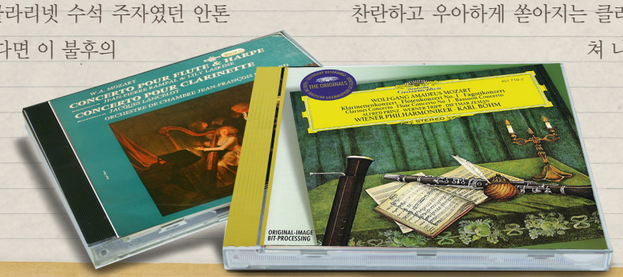
모두 3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모든 악장이 하나같이 아름답지만, 인생을 체념한 듯 애수로 가득 찬 2악장(아다지오)이 특히 가슴에 와닿는다.

빠른 악장인 1악장의 경우에도 모차르트 특유의 생기발랄함이나 상쾌함 보다는 뭔가 진지하고 애틋한 느낌을 준다.

이 곡은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이었던 1985년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면서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 나는 나만 알고 지내던 여자 친구가 다른 사람을 사귀는 듯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이 곡을 들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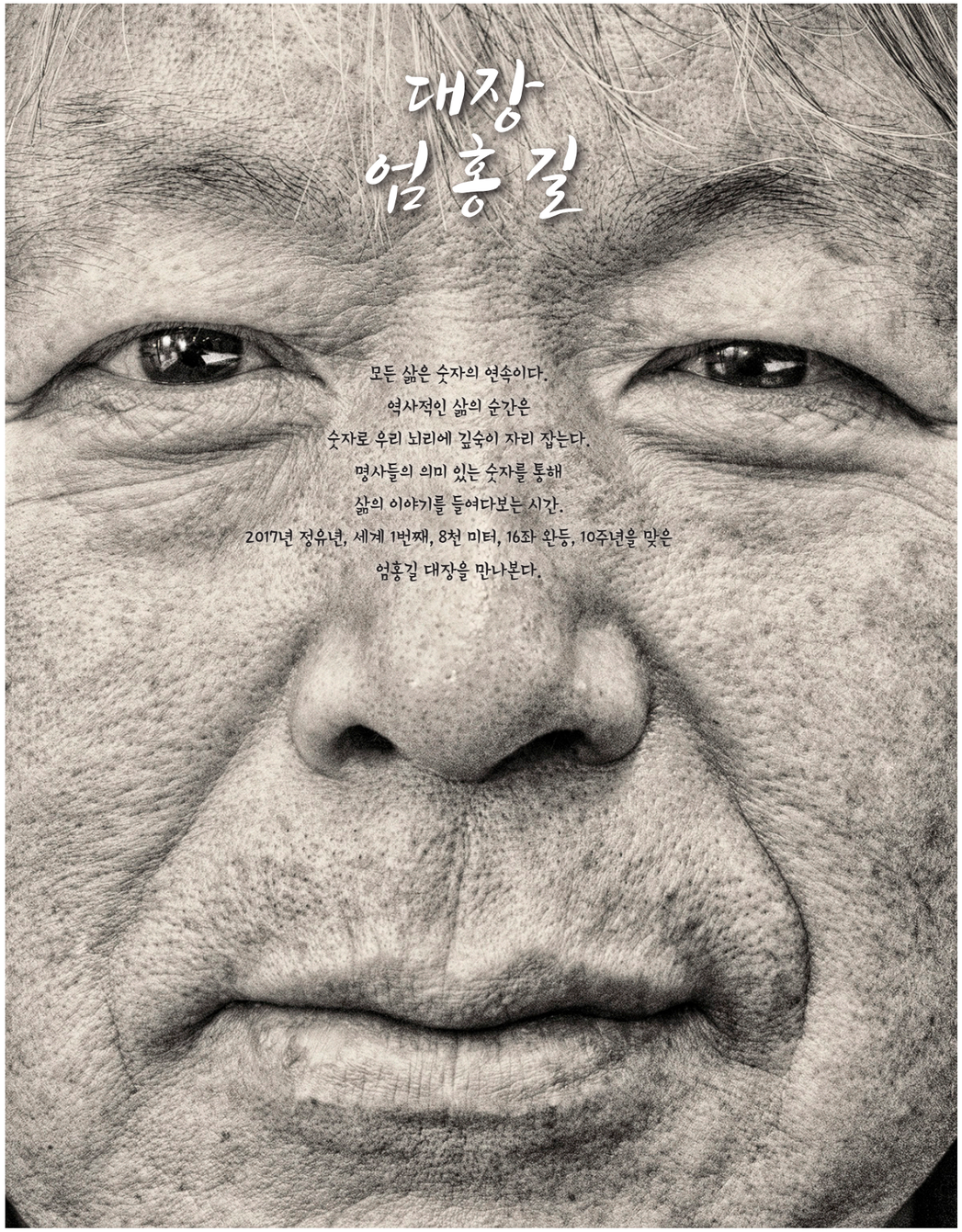
찬란하고 우아하게 쏟아지는 클라리넷 음색에 푹 빠져 헤쳐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추천 음반

프린츠(클라리넷), 칼 뵘 지휘, 빈 필하모니 관현악단이 연주한 그라모폰 반은 빈 스타일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같은 그라모폰에서 나온 라이스터(클라리넷), 라파엘 쿠벨릭 지휘,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의 연주도 훌륭하다. 에라토에서 나온 랑슬로(클라리넷), 파이야르 지휘, 파이야르 실내관현악단의 연주도 최고의 명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Number & Talk



15 •엄홍길 휴먼재단이 기공식을 마친 네팔 휴먼스쿨의 숫자

"나마스떼~ 당신의 신에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엄홍길 휴먼재단이 2008년 5월 28일 설립됐는데요. 그동안 네팔 오지에 학교를 세워 왔는데 벌써 15개라니! 2010년 제1호 학교를 에베레스트 산자락 '팡보체'(4,060미터) 지역에 설립했는데요. 엄홍길 휴먼재단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지어보겠다고 했더라면 마음의 부담이라도 적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히말라야 16좌 등반에 맞춰 16개 학교를 짓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해버렸으니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를 지을 때부터 진짜 어려움도 많았고요.

네팔은 우기가 있어요. 보통 5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돼 9월 초순까지인데 거의 매일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또 저희는 학교를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장소에 짓는 게 아니에요. 도시 가까운 곳,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고 최대한 오지에 학교를 짓거든요. "어휴! 저기에다 어떻게 지어!"하는 곳에다 말이죠. 현지 NGO 단체들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오지에 학교를 짓기 때문에 무엇보다 물자 수송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송비도 많이 들다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악조건 하에서 학교를 짓는 겁니다.

'1'이라는 숫자가 주는 중량감은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큰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중압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시작이 잘 돼야 그만큼 탄력을 받아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의 첫 시작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후배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휴먼 원정대 대원들을 선발해 히말라야로 떠난 일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히말라야 등반 사상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8,750미터에서 1년 동안 매달려 있던 후배(고 박무택 대원)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제게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영화 〈히말라야〉. 휴먼 원정대를 이끈 산악인 엄홍길을 주인공으로 한, 한국 산악 영화 가운데 역대 최다 관객(775만여 명)을 동원한 영화. 영화 속 휴먼 원정 대원들의 의상에 메인 스폰서인 YTN 로고가 부착돼 YTN PPL 역사상 회사 로고 노출이 가장 많았던 영화로 기록.

1 •세계 첫 번째, 최초라는 수식어가 유독 많은 엄 대장

8,850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높이

히말라야에서 제가 처음 도전한 산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요. 처음 실패한 산도 에베레스트이고, 등반 중에 처음으로 동료를 잃은 산도 바로 에베레스트입니다.

그리고 8천 미터 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산도 바로 에베레스트에요. 총 3번 오르고, 이후 1번은 휴먼 원정대로 꼭대기 바로 아래 8,750미터까지 올라갔죠. 에베레스트는 제 히말라야 8천 미터 등반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산으로 도전의 시작이었던 곳입니다.

저는 군 생활 중 산에 빠져 돌아다니면서 히말라야를 꿈꾸고 8천 미터를 오르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됐어요. 이후 열심히 산을 오르던 중에 마침 에베레스트를 가는 원정대와 인연이 닿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에베레스트가 목표가 된 거죠. 운명이었던 겁니다.

18 •38번 도전 가운데 실패한 횟수

8천 미터 산을 38번 도전해 20번 성공했고, 18번 실패했어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도전할 때 처음부터 수월하게 성공했다면 이런 기록과 도전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성공보다도 많은 실패와 좌절, 고통과 시련을 잊지 않습니다. 셰르파 6명, 동료 산악인 4명 등 10명이 같이 산을 오르다가 눈앞에서 사라졌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죠. 실패가 있었기에 저에게 성공이 있었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던 시간과 과정들이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더 불태우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윤활유가 됐어요.

〈안나푸르나〉 사진 제공
_ 사진가 강희갑

10 •세계 최초 8천 미터 16좌 완등 10주년의 해

벌써 10년이 됐네요. 요즘엔 1년이 꼭 한 달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바쁜데요. 10년이 꼭 10개월 같아요. 저 이후로 8천 미터 16좌 등반에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14좌에 성공한 후배들은 많이 나왔죠. 사실 주봉이 14좌라서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다른 2개를 도전한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대단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에요. 마지막 2곳(얄룽캉, 로체샤르)이 다른 8천 미터 산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산이거든요. 로체샤르는 저도 3번 실패하고 2007년 4번째 만에 성공한 산입니다.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2곳을 세계 최초로 오른 셈인 거죠.

58 •2017년 엄홍길 대장의 나이

제 나이가 벌써 쉰여덟입니다. 사실 8은 제겐 행운의 숫자거든요. 제가 살아서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열정을 쏟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저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같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살게 해준 히말라야신에게, 그리고 동료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손 모아 합장, 나마스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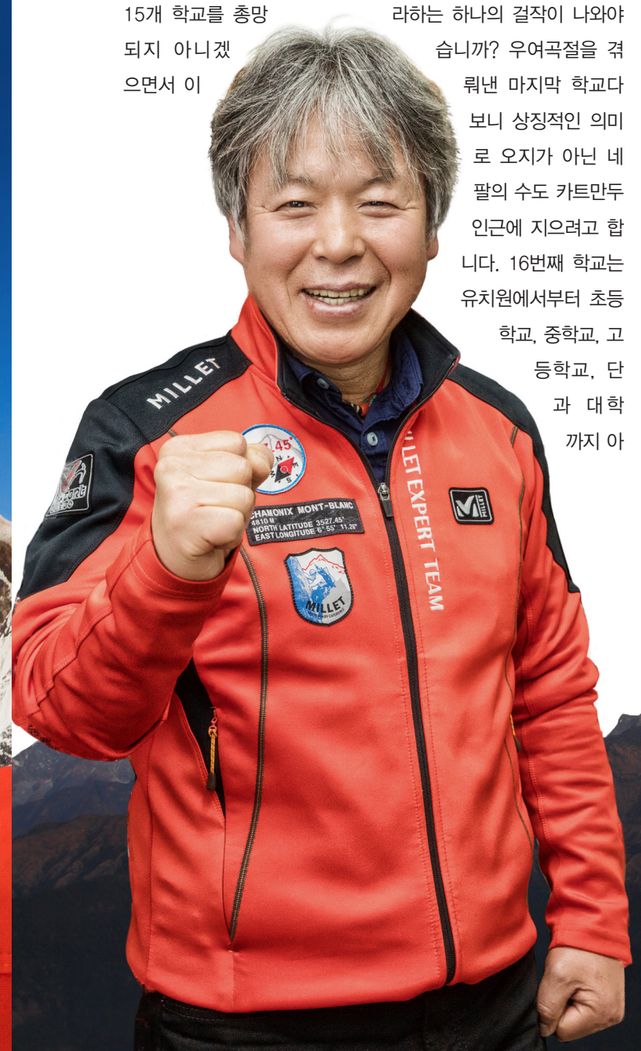
가족들이요? 묵묵히 곁에서 말없이 지켜보면서 응원해주니 항상 고맙지요.

저희 같은 산악인은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완등이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 자신도 버려야 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산에서 제 자신을 챙기고, 인간의 존재를 산 앞에서 나타내려고 하면 절대로 자연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이입되면 결국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도승의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해요.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쓰게 도와준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죠. 저희 아내는 더불어 수도승이 됐어요. 이제는 초월하고 살아요. 하하하.

2017 •정유년 새해, 엄홍길 대장의 계획

16번째 학교도 머릿속에 벌써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학교는 15개 학교를 총망라하는 하나의 걸작이 나와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뤄낸 마지막 학교다 보니 상징적인 의미로 오지가 아닌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 지으려고 합니다. 16번째 학교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과 대학까지 아예 교육 타운을 만들 거예요. 기숙사까지 마련해서요. 그야말로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가 네팔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키스탄 등 다른 지역에도 앞으로 학교를 지을 생각입니다.

또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목 '남체'(3,450미터)라는 셰르파족이 사는 지역에 의료 시설을 짓고 있어요. 공사가 90% 진행 중인데 오는 3, 4월이면 완공됩니다. 셰르파들의 고향이자 가장 큰 도시인데, 에베레스트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 일반인과 등반 팀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산증세를 겪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곳에서 앞으로 환자 치료가 이뤄질 거예요.



"YTN 뉴스 최일선에서 살아있는 뉴스를 만드느라
수고가 많으신 제작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 왔듯이
2017년에도 항상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신념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말라야에서 받은 좋은 기운,
성스러운 기운을 쫘~~~악! 전해 드리겠습니다.
도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의 영화가 그린 세상

로베르토의 특별한 일주일

여전히 사람만이 희망이다

최광희 | 영화평론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우연들이 시간이 지나 돌이켜 보면 '필연'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러나 우연이 필연이 되는 데는 조건이 따르는데,
우연들이 켜켜이 쌓여온 지나온 시간들의 중층이 나의 정신의 너비와 깊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확인할 때 그렇다.
그랬을 때 과거의 일들은 단지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랬어야만 했던' 것으로서의 가치를 부여 받는다.
그랬을 때, 필연은 우연적 순간들의 적분이며,
따라서 우연은 필연의 필연적 미분이 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 남자 로베르토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중국 청년 준을 만난 것도 겉으로 보기엔 순전히 우연이었다. 햇볕 아래 맥주 한 모금 마시며 느긋하게 쉬고 있던 그의 눈앞에 택시 강도를 당해 거리에 내던져진 준이 나타난 것이다. 준은 백부를 찾아 아르헨티나 땅에 막 도착한 길이었는데, 곤경에 처한 그를 도와줄 이는 로베르토밖에 없는 상황. 경찰서에도 가보고, 중국 대사관에도 찾아가 보지만 준의 백부를 찾을 길은 서울에서 김 서방 찾는 것만큼이나 막연하다.

당장 거처가 없는 준을 외면할 수 없는 로베르토는 별 수 없이 그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다. 로베르토로선 피할 수 없는 악몽이다. 성격도 까칠한데다,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에게 이 불청객과 당분간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은, 포장 면에 표시된 숫자보다 항상 적게 배달돼 오는 나사못보다 더 불쾌한 일이다. 원치 않는 동거가 시작된다. 그리고 크고 작은 소동들.

휴먼 드라마의 기본 공식에 익숙한 이들은 이제부터 로베르토가 준과의 동거를 통해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그렇다. 그는 변화한다. 그런데 그 변화의 과정이 빤하지 않다는 게 이 영화의 미덕이다.

어느 순간 깊어진 우정에 울먹이며 서로를 껴안지도 않으며, 까칠했던 로베르토가 극적으로 개과천선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 해프닝은 진동을 만들어내는 지점들이 있다. 굳이 눈물의 장치를 동원해 강조하지 않아도 관객들이 알아서 느낄 수 있는 진동이다.

그건 앞서 말한 우연과 필연의 상관관계와 맞닿아 있다. 로베르토와 준의 만남은, 없었으면 좋았을, 단순한 우연의 소산이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만나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어떤 필연성이 도출됐느냐가 중요하다.

세계는 넓고 개인은 파편화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사이에는 수많은 경계들이 그어져 있다. 그러나 영화는 경계를 무력화하는 '연결적 세계'의 프레임으로 두 인물을 바라본다. 견고한 경계가 슬쩍 붕괴되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성의 선한 측면 자체가 필연을 창조하고 있음이 무심결에 드러난다.

경계가 무력해지는 순간,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수직적 필연이 현재의 수평적 우연과 파열하면서 '앗!'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게 순식간에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행운'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또 하나의 필연이다.

새해가 밝았다. 부푼 희망과 깊은 탄식이 교차하는 정유년이 시작됐다. 한치 앞을 내다 보기 힘든 소용돌이 정국을 통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좌표를 향해 나갈 것인가. 이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하고도 정의로운 의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행운'이 될 수 있는 필연성을 창조해 내야 한다. 당장 광장을 밝히는 촛불 민심은 거대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여전히 사람만이 희망이다.

로베르토의 특별한 일주일
- 개요 _ 코미디 / 아르헨티나, 스페인
- 감독 _ 세바스찬 보렌스즈테인
- 출연 _ 리카도 다린 (로베르토), 뮤리엘 산타 안나 (마리), 이그나시오 황 (준)
- 개봉 _ 2016년 4월 7일 / 93분

YTN 이모저모

YTN 빅드림 청소년 활동진흥을위한 업무 협약 _ 11. 16

국립국어원 감사장 수여식 〈한류 활용 한국어교육 방송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_ 11. 21

중국 산동성 관광 발전 위원회 방문 _ 12. 21

YTN 시청자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랑나눔기금 후원금 전달식 _ 12. 22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향상 공로에 관한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장 수여식 _ 12. 28

대강회 – YTN 상생 협력 모임
상생 협력 기금 전달식 _ 12. 29

정유년 서울타워 일출행사 _ 2017. 1. 1

실국장 및 부팀장 사령장 수여식 _ 2017. 1. 6

오피니언 리더의 대화 채널 YTN 5종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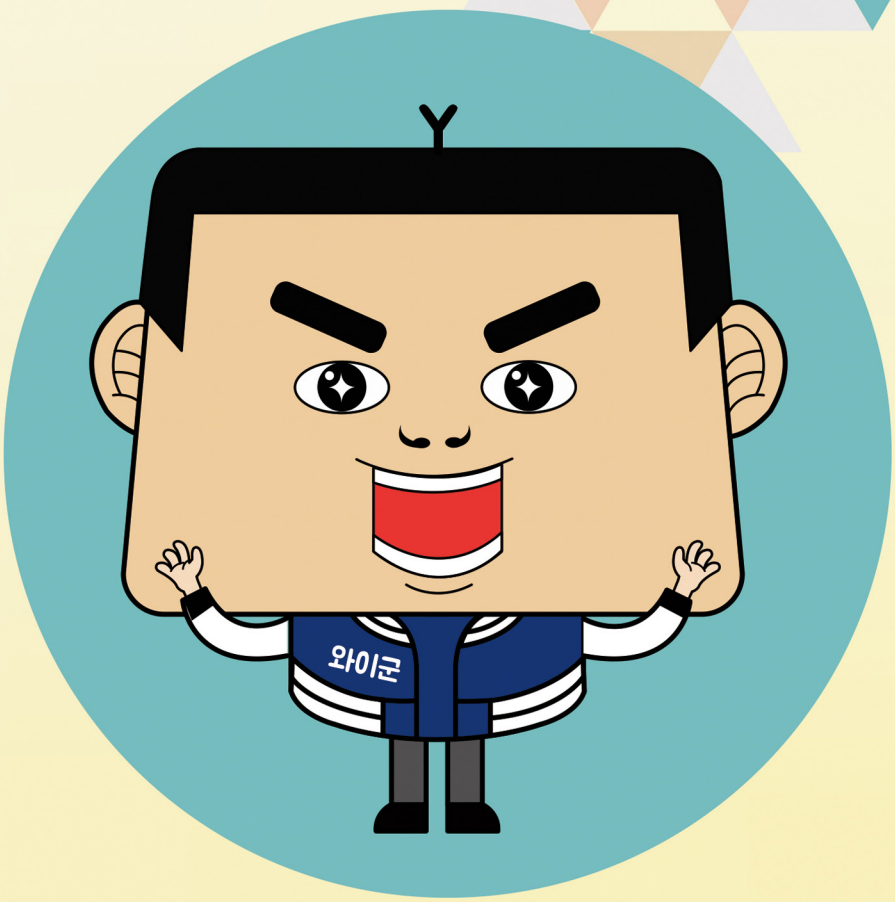
슬쩍 읽고 번쩍 뜨이는 지식톡톡

YTN

문의 02.398.8188

삼성,LG,HP 노트북 살 땐?

오직 대학생만 가능한 할인 이야기!

교육할인스토어

와이군 닷컴 (www.ygoon.com)